

삶의 유한성이 피운 안타까운 想思花

김성철 서효원 이연주 등의 유고집 독자들 관심 끌어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鍾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鍾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한 외국시인은 그렇게 읊었다. 맥락은 크게 다르겠지만, 鍾 대신 ‘유고집’을 대입시키면, 유고집은 저자 스스로를 위해 발간되지 않는다. 오히려 발문·후기·해설 등에 ‘제망매가’를 써넣는 知人들의 추억을 위해 나오기 마련이다.

설혹 그렇더라도 유고집이 산 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문학평론가 남진우씨는, 채광석·박정만·기형도의 유고시집을 다루는 글에서, “천재와 요절의 함수관계를 둘러싼 여러 신화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채 완성되지 못한 삶이 던져주는 안타까움과 死者에 대한 추억과 애도, 삶의 유한성에 대한 새삼스런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경건하면서도 웅장한 감정의 무늬를 빚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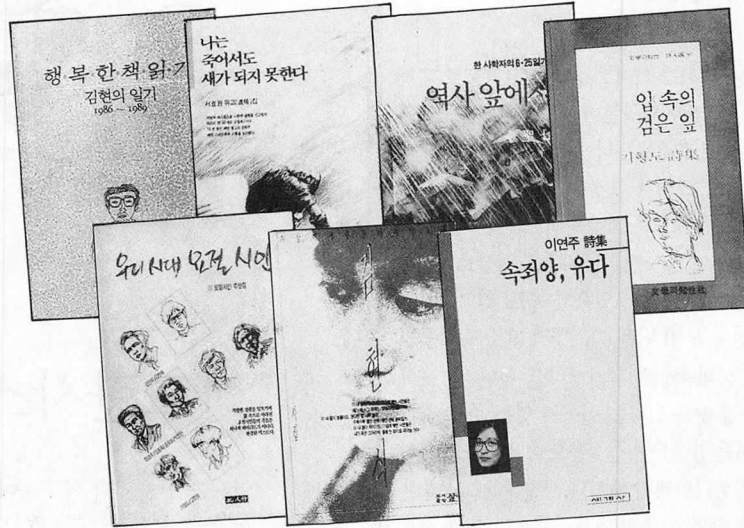
유고집은 저자를 위해 발간되지 않는다

유고집들은 대개 그를 존경하는 자들이 모인 ‘간행위원회’나 ‘추모위원회’에 의해 발간된다. 작가라면 그의 유작과 여러 수필성 산문들과 일기 등으로 책이 구성되며, 학자라면 그의 대표적 논문들이 추려지고 후학들의 논문들이 바쳐진다. 그리고 知人 중의 知인이 다양한 형식으로 추모글을 보낸다. 그 추모글은 ‘주례사’를 방불할 정도로 찬사일변도로 써어지기도 하지만, 초혼가에 육박하는 감동적인 문장이 되기도 한다.

대형서점의 서가에서 유고집을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 숨쉬는 공기처럼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매품’으로 한정부수만을 발간하는 유고집까지 보태면 최근에 나온 유고집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더욱 무의미하다. 책 내기가 낱알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전문서술인이 아니라더라도 그들의 유고집이 더더욱 많이 출간될 것임은 자명하다.

최근 문단과 독자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몇 종의 유고집들은 산 자들을 숙연케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가 너무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를 하는 반성”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끈다.

‘한 사학자의 6·25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前 서울대 사학과 金聖七교수의 「역사 앞에



삶을 반성케 하는 유고집들.

서」(창작과비평사),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뒤 “자기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 천여 권의 ‘무협소설’을 써낸 故 서효원씨의 「나는 죽어서도 새가 되지 못한다」(서울창작), 처절한 부정정신으로 점철된 처녀시집 「매음녀가 있는 밤의 시장」을 낸 뒤 지난해 10월 자살한 故 이연주시인의 「속죄양, 유다」(작가세계),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투명한 사유의 세계를 펼쳐보였던 故 김현씨의 일기인 「행복한 책읽기」(문학과지성사) 등이 그것이다.

광복과 전쟁의 와중에서 접하게 된 참상과 인간군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역사 앞에서」는 “해방공간의 사회사를 바로 아는 데 더없이 좋은 길잡이”임은 물론이거니와 지식인이라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문제를 일기형식의 역사抄를 통해 새롭게 제기한다. 양심적인 지식인의 고뇌와 방향이 차가운 학자적 면모가 담긴 삽화를 통해 제시된다. 예컨대 50년 9월 10일자의 일기는, 하루의 연명이 어려운 전쟁통에서도 명륜동 앞길에서 중공군의 팔로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군인증을 주워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내용이다.

死者들의 산 자를 위한 발언대

“한국판 「안네의 일기」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51년 10월 고향 영천에 가던 중 피격을 당해 39세 나이로 절명 후 40년이 넘는 시점에야 빛을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고병익(한림대 동양사) 교수와 「간행사」를 쓴 신경림 시인은 평가한다. 특히 인민군의 서울 점령 3개월 동안의 풍경인 “인민위원회 선거 모습이라든가

화신백화점에서의 북한 책 판매, 인민재판의 광경, 인공 치하와 서울 수복 이후 번갈아 행해진 교수자격심사 등 서울대에 닥친 전쟁의 풍파 등”은 소설적인 재미마저 보여준다.

그의 부인 李南德씨(73, 前 梨大 교수)는 “이 일기를 40여년만에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좌·우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직접 체험한 한 역사가의 눈을 통해 재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암과 폐기종으로 시한부생명을 선고받은 후 만 33세로 요절하기까지 10년 동안 세계 기네스북의 기록을 능가하는 천여 권의 무협지를 ‘써냈던’ 서효원씨의 유고집 「나는 죽어서도 새가 되지 못한다」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지 반성케”한다. 그의 다작은 ‘추모글’에 의하면, “살아 있는 동안 이미 죽은 몸이었기에 영혼을 담아 두기를 거부하는 육신을 달래기 위한 슬픈 몸짓뿐이었음”이라고 한다. 이 유고집에는 추모시, 화보, 머리말, 프롤로그, 詩, 산문, 일기, 추모글, 작가연보 등 한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글들이 망라돼 있다.

유언과, 시집으로 펴내기 위해 정리한 한 묶음의 원고와 몇 알 남은 약병을 남긴 채 자살한 이연주시인의 「속죄양, 유다」는 이제 그녀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죽음이 통속적인 화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남겨둔 시들로 평가되길 바란다”는 유언처럼 그렇게 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녀 스스로 「사랑은 햇빛을 액기스로 뽑아」라는 제목을 붙였었지만, “그녀의 죽음에

쓸데없는 흥미를 줄이고 시를 좀더 객관적으로 접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文友들의 의견에 따라 바뀌었다고 한다.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그녀의 생애와 유고시집에 대한 기사를 쓴 양권모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는 그의 글에서 “이번 유고시집에서는…… 첫시집에서는 엿볼 수 없었던 ‘햇살 방울을 공중에 흩뿌리는 겨울나무’ ‘초록빛 종소리’ 등과 같은 소생의 시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다수의 시편에서 ‘당신’을 간절히 회원하고 있다. 그 ‘당신’을 불러 ‘숨쉬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시인의 바람, 도시의 부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비원은 시집의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채를 띤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마에 재 뿌리고/쭈뼛과 별 좇대 들고/들판으로 갔다//나는 밀거울 껌데기로/홀껌데기로/주여, 용서하소서, //어두운 실핏줄이 터져/못이길 두려움에/흔들릴 듯/외마디 소리를 질렀다/주여, 용납하소서. //바람이 죽은 날들을 닮았다/나는 혼신을 다해/쫓대 위로 올랐다./ /불을 그어다오.” (「終身」 전문)

이 ‘유언시’를 쓰고 그녀는 죽었다고 한다.

‘마지막 노작’ 의미 갖는 유고집도

“죽음에의 예감에 집착하면 할수록 동시에 죽음 앞에 살아 있음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숨소리”인 「행복한 책읽기」는 “짧은 몇 마디 말 속에 큰 핵심을 실어나르는 단장 형태의 글쓰기를 제시”한 유작으로 이야기된다. 일기의 형식이 되 “짧고 맛있는” 글쓰기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인성씨는 발문을 통해 “일기를 컴퓨터로 새로 정리했다거나 그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었지만, 선생은 이 유고의 출판권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유고집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노작의 의미를 고려하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제작년에 나온 「우리 시대 요절 시인」(삼인행)에 「요절시인론」을 쓴 김승희씨는 요절한 예술가의 삶에서 미치도록 아름다운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 잎이 피어나는 상사화의 운명이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인만 예술가인 것도 아니고 단지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만 해서 요절이 아니므로, 위의 유고집들도 상사화라 할 만하다.

— 김중식 기자